

승리의 비결 (마 4:1-11)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승리의 삶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에 집에서 아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보는 중 마는 중 하다가 몇 분을 정신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웅 호걸들이 자신들만의 무기를 가지고 서로 때리고 치고 박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아들은 침을 흘리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러도 못 듣습니다. 싸우는 장면만 나오면 모든 하던 것을 내려놓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싸우는 장면이 끝난 후에 괜히 허공을 한번씩 차보면서 예전에 하던 태권도 동작 몇 가지씩 해봅니다. 그러면 아내는 옆에서 말합니다. “뭐 싸우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정신줄을 놓냐? 난 싸우는 거 하나도 재미없는데....” 동의하시나요? 싸우는게 왜 재미있나요?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잘 날려서 발을 잘 날려서 적을 무찌를 때의 그 대리만족의 쾌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승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렇게 녀를 놓고 보는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 동의 하시죠? 자 그럼 여자들은 승리없습니까? 여자들이 더합니다! 쇼핑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쇼핑몰에가서 한 10 분 둘러보면 일 다마쳤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샅는데 그 다음날 옆집 아주머니가 아주 날씬해보이는 원피스를 입으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쇼핑몰 다시 갑니다. 옷 바꾸러 갑니다.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를 미모로 옷 맵시로 이겼을 때 비로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잠이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옷인데 여자들의 눈에는 복싱 링과도 같습니다. 이토록 우리들은 남자건 여자건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남들을 꼭 주먹으로 때려 눕혀서 얻는 승리던 옆집 아줌마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승리던 우리는 승리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승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승리하셨나요? 세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 말씀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 세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

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자주 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금식의 왕이십니다. 기도의 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금식을 정말 자주하십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한번은 제가 어렸을 때 20 일 동안 온전한 금식을 하셨습니다. 물만 드시고 정말로 아무 것도 안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다도 더 마르시고 기력이 없으셨던 것이 기억에 뚜렷합니다. 제가 대학교 4 학년 때 70 일 금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때는 매일 두끼 씩 금식하시면서 하루에 7-8 시간 이상씩 매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70 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천안 지역 집회를 가셔서 피아노 반주를 하던 김현경 사모를 보시고 마음에 확신을 얻으신 것입니다. 저는 금식도 안하고 있었는데 기타만 땡까땡까 치고 있었는데 순전히 아버지의 금식 덕분에 어머니의 평생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기도 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한 것이 제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 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모님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쉽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 일을 밤 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음식 뿐 아니라 물로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장소는 풀도 잘 자라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 긴 시간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 40 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예수님께도 음식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들처럼 음식을 의지해서 살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 하기 시작 합니다. “니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풀이 없는 사막에 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더우기 이스라엘 지역의 사막들은 고운 모래가 아닌 딱딱한 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수 많은 돌들이 떡이 된다면 빵이 된다면 엄청난 대박이죠! 그 더운 사망의 사막을 대규모 시온 빵집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ㄱ)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으로 살긴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함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두 구절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모든” 말씀을 강조합니다. 가장 마지막 장인 28 장에서 지상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가져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부분적인 말씀, 반쪽짜리 말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말씀”으로”의 “으로”입니다. 원어로 볼 때 “으로”는 “~~에 의해”를 뜻합니다. 뭔가에 의지해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빵 “으로” 산다면, 빵에 “의해” 혹은 빵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빵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혹은 말씀이 원동력이 되서 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계십니까? 떡을 의지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한 순간도 버틸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소가 없으면 한 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소를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면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집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몇 일은 살 수 있겠지만 몇 달 몇 년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집과 돈을 의지해서 삽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 중에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4 시간 정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사람은 인터넷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하루에 1-2 시간 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조깅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운동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10 분에 한 번씩 페이스북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서 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 돌, 광야의 떡들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 떡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이 떡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을 때에 슬쩍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광야생활 힘들지~~~ 고생 많이 하네~~ 그 고생도 잊을 겸 니가 좋아하는 떡을 좀 먹어봐~~ 너 그 떡 좋아하잖아~~ 너 운동 좋아하잖아~~ 너 인터넷 좋아하잖아~~ 너 그 책들 좋아하잖아~~~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없으면 못사는 그 떡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떡으로만 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입니다. 우리는 떡이 없으면 못 살것 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버티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도 성경 통독해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매일 읽지 않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10%는 성경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도 안읽고도 어떻게 신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오직 10%만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50%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몇 줄과 몇 몇 이야기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댁니다. “나, 오늘 너무 바빠, 성경읽을 시간이 어디있니?” 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바쁩니다. 매일 아침, 오후 저녁에 아이들 학교, 방과 후 활동 데려다 주느라 도로에서 버리는 시간이 어마어마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 그랬습니다. 저와 아내가 분담하여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도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라이드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선 아이들이 많이 바쁘죠... 아침 일찍 나가서 학교 후에 학원 끝나고 오면 밤 늦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60-70 시간 일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 직장 동료들과의 미팅들이 왜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바쁘게됐죠?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 성경책 읽을 새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마다 이유가 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직장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우리 아이들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는 건강한 몸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지만 까짓거 하나님 말씀은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연 중에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궂이 밖으로 말은 안해도 우리 삶과 우리 행동 속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내팽겨 치고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이기기 위해 그 떡들을 여러분 앞에 던져놓고 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무는 순간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왠지 성경 볼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미팅이 자꾸 생기고, 성경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 공부가 내 스케줄을 채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뿔사 내가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비록 예수님도 배고프셨지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며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페이스북에다가 매일 아침에 읽을 성경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을 다 읽으면 일년에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합니다. 밖에 나와 있어도 올립니다. 왜냐면 저 뿐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매일같이 공급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전쟁터입니다.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시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떡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꼬집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싸워 이깁시다!

2. 말씀 아래 삶

두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 아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위에 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번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봅시다.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시험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시험이 나쁜 시험인줄 알았습니다! 마귀가 했으면 모든게 나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쁜 시험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배고프고 혼자서 외롭게 사단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 결코 외롭지 않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지 말라” 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한번 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고 능력을 보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원수인 마귀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마귀가 시험했다고 해서 내용이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나쁜 것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나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아닙니까? 좋은 내용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왜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 나도 좀 확인해봐야겠다고 안하시고 오히려 마귀보고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험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시험의 문제의 핵심은 “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을 증명하라는 자기 중심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천사까지 보내주시는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만큼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시험입니까? 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시험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자기 중심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 요즘에 너무 외롭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혹은 “하나님, 제 은행 잔고에 30 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30 만원을 3 천만원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내일까지 밀린 일들을 다 끝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처음과 나중되시는 주여! 지금 바로 역사하셔서 시작과 동시에 끝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있으라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웬지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궁해지면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방에 들어내도록 한방에 주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 기도는 마귀적인 기도가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막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금식 기도 후에.... 나 피곤하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나 이렇게 할 때니까 좀 도와 주셔 하면서 자기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바라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기도이고 영적전쟁에서 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되고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분이 우리 뜻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 뜻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 말씀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시고 너는 그의 뜻 아래있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이 십자가에서 구해주세요. 주의 천사들을 지금 보내셔서 이 못된 로마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유대 리더들을 혼내주세요. 그리고 저를 그들의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뜻 아래 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 건강, 직장, 가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전혀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뜻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잃은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 학교에 선교사로 가서 안 믿는 친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화목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화목한 가정을 보고 예수께로 인도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축복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그 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뜻대로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때 비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산 꼭대기에서 보는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답다운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20 여년전에 학교에서 교환 학생으로 하와이에가서 3 개월 정도 살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3 개월 동안 보았던 아름다운 광경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후 2 시 경만 되면 비가 축축히 내리고 저녁 5-6 시 정도 되면 하늘이 항상 붉게 물들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구름들이 마치 열은

붓으로 끝없는 그림을 그린 듯한 장관입니다. 지금은 화산 폭발로 검은 연기에 가려있는 하늘이지만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는 곳입니다. 그 때 들었던 생각은 이 곳에 살고 싶다였습니다. 물론 대학생이라 어린 나이였기에 그 곳에서 직장 잡고 결혼하는 것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아름다운 곳에서의 첫 반응은 그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곳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로 안되지만 그 섬을 돈만 있다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영화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굿이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며 세상을 보며 세상의 영화에 감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못 난 것으로 못생긴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잘 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저 아름다운 집 좀 보라... 가지고 싶지 않니? 저 아름다운 여인을 좀 보라.... 저 멋진 사업체를 좀 보라.... 저 훌륭한 학교를 좀 보라..." 하면서..."네가 나에게 엮드려 절하면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네게 줄게" 라고 시험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 모든 아름다움을 얻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저 마귀에게 한번 꿇어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 한분 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그 분만 경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단은 그렇게 약속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의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길 활짝 열린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가 더 낫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사단을 섬기면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영화로운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과 예수를 섬기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핍박받는 다는 약속,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마귀의 약속이 더 솔깃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없이 본능에 충실하여 선택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같이 마귀의 약속을 덥석 물고 선택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웬만하면 더욱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들을 누리며 이왕이면 더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고생하면서 핍박받으며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단을 선택합니다. 사단을 공경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물론 사단이란 대상을 직접적으로 예배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좇는 것 자체가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생고생임에도 불구하고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분의 약속을 살아내며 따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영화롭고 부유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단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좋고 끌리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기에 우리는 그 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과 영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그 분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분을 믿을 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사단을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억대의 돈을 손에 움켜 쥔 순 있습니다. 잠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감쪽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 동네에는 비바람이 자주 붓니다. 3 개월 전에도 저희 동네에 큰 비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천둥 번개까지 동원되서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5 시 경에 우지끈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창문을 열고 보니, 저희 집 뒤에 있던 나무가 번개를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쓰러지면 모르는데 저희 집 지붕위에 쓰러진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 보니 나무가 쓰러지면서 저희 집 지붕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게 웬 일입니까? 2 년 전에 새 집을 사서 이사와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버리니 갑자기 낙담이 됩니다. 새 집이라고 나름대로 잘 꾸미고 예쁘고 멋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순간의 바람과 한 번의 벼락이 바로 그 아름다움을 훗날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것을 경험하고 이 땅의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멋있게 하려 해도 수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한 순간의 바람으로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무릎꿇고 이 세상 영화와 아름다움을 손아귀에 쥔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죽을 때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 세상의 영화로운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계속

승승장구하며 머물 수 있고, 아직도 경제적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찾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 분 하나만으로 즐거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 자체를 즐거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어떤 세상 것들로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 27:3-4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기름부으시고 친히 세우신 왕이었지만, 다윗의 삶은 항상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하는 적들로 가득찼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들을 공격하려 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다윗은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추구합니다. 시편 말씀 처럼,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만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일개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적을 대적하는 일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는 순탄치 않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100 평 집에 사는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영화로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적들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영화에 집중할 때 그 모든 문제와 적들이 여러분 앞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 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강하고, 말씀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열방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명예,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